

【논 문】

## 1920년대 사회주의 혁명기 한·몽 연대의 시도와 한계\*

—남마리아의 활동을 중심으로—

오 미 영\*\*

### 【 차 례 】

- I. 서론
- II. 중한몽일(中韓蒙日)혁명위원회와 동아시아 연대
- III. 극동민족대회와 동아시아 사회주의 혁명운동
- IV. 시베리아 한인들의 몽골 이주
- V. 결론

### 국문초록

본 논문은 1920년대 초 동아시아 사회주의 혁명 정세 속에서 전개된 한국과 몽골 간 연대의 시도와 그 한계를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한 남마리아의 활동을 밝히고자 한다. 1910년대 민족주의 한인 인사들에 의해 한국 독립운동의 새로운 거점으로 몽골이 주목되었지만, 이태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한인들의 활동 기반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후 1920년대 들어 중한몽일 혁명위원회, 동양국, 극동비서부 등 동아시아 사회주의 혁명운동의 통합 조직이 설립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한·몽 연대의 정치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당시 국제적인 항일 공동전선 속에서 이르쿠츠크파 한인 사회주의 세력과 몽골혁명 세력 간의 긴밀한 교섭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몽골혁명 지도자 린치노와 한인 2세 남마리아는 결혼 후 1921년 몽골로 이주하였다.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C2A01092498).

아울러 저자의 박사학위논문(『20세기 초 한·몽 교류 연구: 몽골행(行) 한인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2019)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음.

\*\* 단국대학교 부설 몽골연구소 연구교수.

이후 소비에트러시아의 정책적 혼란으로 약화된 한몽 연대는 1921년에 개최된 극동민족대회를 계기로 보다 구체화되었다. 몽골에 체류 중인 남마리아의 도움으로 여운형, 김규식 등으로 구성된 한국대표단과 몽골대표단이 함께 대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또한 양측은 소비에트러시아의 지원 하에서 민족의 독립과 해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며 정치적 연대를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몽골혁명이 린치노와 한인 인사 간의 정치적 교섭이 전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계도 나타났다. 이는 양측이 견지했던 사회주의 혁명 방법론과 대일(對日) 외교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21년 혁명의 성공으로 인한 몽골의 정치적 변화는 일제의 압박을 받던 한인들에게 새로운 이주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실제로 몽골 정부에 한인들이 귀화와 거주를 요청한 사례들이 확인되며 이 과정에서도 남마리아는 린치노의 정치적 비호 하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몽골 정부는 초기에는 한인 이주에 우호적이었으나, 이후 소련-일본 관계의 변화에 따라 관련 정책이 소련의 방침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와 같이 한몽 연대는 사회주의 국제질서 속에서 일정한 가능성을 보였으나, 소련의 동아시아 정책 혼선과 더불어 1925년 남마리아가 린치노를 따라 소련으로 이주함에 따라 그 중심점을 상실하였고, 결국 실질적인 협력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주제어: 한몽 연대, 남마리아, 린치노, 몽골혁명, 극동민족대회

## I. 서론

20세기에 들어 몽골은 1911년과 1921년에 두 차례의 혁명적 변화를 겪었다.<sup>1)</sup> 1911년 독립 선언과 북드 칸 신정부 수립을 통해 정치적 자주성을 확보한 몽골

1) 1911년 혁명을 ‘혁명’이 아닌 ‘운동’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몽골학계 내 다수의 연구자는 몽골이 청나라의 통치 체제를 포기하고 자치정부를 수립하였기에 ‘혁명’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Н.Эрдэнэтуяа, 2000, 『Монголын гурван хувьсгал』, УБ, 20, 47쪽.

은, 대외 개방을 통해 단절되었던 외부 세계와의 교류를 다시 이어갔다. 당시 몽골은 서구 열강으로부터 중·러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며 서구 열강의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정치·외교적 환경의 변화는 한국 항일운동이 몽골로 외연을 확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그 결과 1914년 김규식, 이태준 등 민족주의 인사들이 항일 투쟁의 거점을 마련하고자 몽골행에 올랐다. 이를 중심으로 적지 않은 민족주의 한인들이 몽골로 향했지만, 이태준이 몽골로 남하한 백군에게 살해되면서 몽골 내 한국 독립운동의 기반이 크게 약화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태준의 사망으로 몽골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1917년 러시아혁명 소식은 제국주의 지배하에 있던 약소 민족들에게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통한 민족해방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서구 열강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던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의 새로운 돌파구로 사회주의 혁명운동에 주목하였다. 한편, 몽골 역시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러시아혁명 세력과의 연대를 모색하였으며, 그 결과 1921년 소비에트러시아의 지원 아래 인민 혁명을 성공시켰다.

1921년 혁명으로 인한 몽골의 정치적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새로운 독립 방안을 찾으려고 했던 한인 인사들을 몽골로 이끌었으며, 이는 한몽 정치 연대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1920년대 사회주의 혁명 시기 항일 투쟁을 위한 동아시아 연대 활동의 맥락 속에서 한몽 연대의 다양한 시도들을 검토하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남마리아의 삶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남마리아는 그간 국내 학계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사회주의 여성 운동가로, 1920년대 몽골을 경유해 상해와 이르쿠츠크를 왕래하던 한인들의 기록을 통해 그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인의 기록을 토대로 남마리아의 행적을 추적하는 동시에, 1920년대 이태준 의사의 뒤를 이어 한몽 연대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 그녀의 삶을 통해 한몽 연대의 시도와 그 한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 II. 중한몽일(中韓蒙日)혁명위원회와 동아시아 연대

1920년에 들어 사회주의 혁명운동의 중심이 유럽에서 동아시아로 이동하면서 동아시아 사회주의 혁명운동의 통합 조직을 설립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그 사업의 하나로 1920년 봄 소비에트러시아 외교부 전권위원부의 지원 아래 중국·한국·몽골·일본 사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중한몽일 혁명위원회'가 이르쿠츠크에서 비밀리 결성되었다. 이인섭의 기록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외교부 전권위원 안손(Ya. Yanson)의 지휘 아래 회장에 골촌, 부회장에 몽골의 초이발산(Kh.Choibalsan), 중국의 류아오, 이인섭, 서기에 채성룡(채그리고리) 등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sup>2)</sup> 동 혁명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동아시아 사회주의 혁명운동 전개 과정에서 한몽 양국 인사들 간 공고한 연대망이 구축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이인섭<sup>3)</sup>과 초이발산<sup>4)</sup>

2) 이인섭, 1995, 「이인섭의 편지」·「망명자의 수기」,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홍범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7, 190쪽.

3) 장세운, 2021, 「중국 동북(만주)·연해주 지역 독립운동 관련 주요 회고록 현황과 사료적 가치」, 『한국 근현대사연구』 99, 92쪽.

4) <https://www.calendarz.com/ru/on-this-day/january/26/khorloogiin-choibalsan>(검색일 2025년

몽골 측의 대표 초이발산은 1921년 몽골혁명의 주역으로서, 1924년 몽골인민 공화국 수립 이후 소련과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최고 지도자에 오를 수 있었다. 스탈린의 통치 방식을 따르며 1차적 권력을 거머쥔 그는 후대에도 '몽골의 스탈린'이라는 수식어로 널리 알려져 있다. 초이발산이 중한몽일 혁명위원회에 관여한 사실은 현재 몽골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그가 1914년부터 1917년까지 이르쿠츠크에 있는 국립 중등학교에서 수학하였고, 이후 이르쿠츠크를 기반으로 혁명운동에 가담한 사실은<sup>5)</sup> 중한몽일 혁명위원회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 볼 수 있다.

이인섭은 평양에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1910년 일제에 의해 한국이 강제 병합되자, 중국으로 망명하여 항일운동에 나섰다. 중국에서 다시 러시아 연해주 지역으로 옮겨 그곳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하고, 1917년 김 알렉산드라의 제의에 따라 사회주의 단체인 '우랄노동자동맹'의 회장직을 맡았다.<sup>6)</sup> 이후 그는 1918년 김 알렉산드라가 창당한 한인사회당에서 선전부장 겸 재무 담당 중앙위원을 맡으며 사회주의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창당 직후 백위파군과의 전투로 김 알렉산드라를 잃게 되자 이인섭은 옴스크로 옮겨 여러 사회주의 인사들과 함께 혁명사업을 이어갔다. 그러던 가운데 1920년 이르쿠츠크를 거점으로 활동했던 소비에트 정부 외무인민위원회 전권위원부의 시베리아 사업인 '중한몽일 혁명위원회'에 가담하게 되었다. 하지만 동 혁명위원회는 얼마 되지 않아 1921년 코민테른의 극동비서부가 조직되면서 사업이 중지되었다.<sup>7)</sup>

중한몽일 혁명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은 현재 이인섭의 단편적인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 혁명위원회의 설립 전후 시기를 중심으로 이인섭의 행적을 추적하여 그 성격을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자

10월 12일)

5) Л.Бат-Очир, 1996, 『ЧОЙБАЛСАН』, УБ, 15-16쪽.

6) 반병률, 2008, 「항일혁명가 이인섭(1888~1982)의 회상기에 기록된 스탈린 대탄압과 항일혁명역사 복원」, 『한국 근현대사연구』 47, 4쪽.

7) 이인섭, 1995, 앞의 책, 27쪽; 이인섭, 2010, 「모스크바에서 해삼까지」, 『이인섭과 독립운동자료집 I-자서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483쪽.

한다. 이인섭은 항일운동을 위해 1913년 중국으로 망명한 뒤 국경 지역에서 중국 인들과 연대하여 반제·항일 투쟁에 나섰다. 당시 이인섭과 연대를 가졌던 중국인은 중국 항일 마적 왕덕림(王德林)으로 그는 이인섭이 러시아로 건너가려는 도중 여권이 없어 감옥에 갇히게 되자, 그를 석방하는 데에 도움을 준 인물이다.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반제국주의라는 연대 아래 끈끈한 형제애를 다지며 민족 해방의 방안을 논의해 갔다. 당시 왕덕림은 “조선 민족의 해방 혁명도 자신 중국과 연계하여야 하며 장백산(長白山)과 내·외몽고에 사관학교와 독립 군대를 조직해 인재를 양성하여 농장을 짓고 상업교육도 실시하여 일제를 타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sup>8)</sup> 왕덕림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인섭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과의 연대를 모색하여 제국주의로부터의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구상을 전개했을 것으로 보인다.

동 혁명위원회가 해체된 이후에 이인섭은 모스크바에 머물다 치타로 돌아와서 중국 혁명가 장강호(江亢虎)<sup>9)</sup>와 일본사회당 간부 大廷을 각각 만나 향후 동아시아 혁명운동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기에서도 동 혁명위원회의 성격을 추론할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장강호와 大廷은 “조선의 독립과 일본·중국의 사회혁명은 각각 단독으로는 이룰 수 없으며 일본·중국·조선 혹은 몽골까지 합하여 몽골에서 동양 혁명군을 양성해 일본 및 중국 군벌을 공동으로 타도할 때 가능하기에 이후 하얼빈 혹은 상해에 수도를 둔 동양중앙연립정부를 건립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비쳤다.<sup>10)</sup> 이는 당시 중·한·일 사회주의자들이 한국 독립과 동아시아 혁명운동을

8) 왕덕림의 구상은 1913년 김규식이 군관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유동열, 이태준, 서왕보를 데리고 몽골 후대를 방문한 것과 연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는 한국 독립운동 초기 몽골지역도 한국 독립운동의 새로운 근거지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인섭, 2010, 앞의 책, 169,191쪽; 조대호, 2025, 『이인섭과 극동 중국계 공산주의자들과의 교류 연구: 『이인섭과 독립운동자료집』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92, 65쪽.

9) 장강호(江亢虎, 1883-1954)는 우창 봉기가 일어난 직후인 1911년 11월에 중국 사회주의 정당 ‘중국사회당’을 창시한 인물이다. 중화민국 수립 이후 탄압을 받게 된 장강호는 미국으로 도피하였다. 1920년 중국사회당 재건을 위해 귀국한 후 이듬해 1921년 5월 북경에 주재한 유린사절단의 소개로 러시아행에 올랐다. 제3차 코민테른 대회(1921년 6월 22일~7월 12일)에 참석한 장강호는 당시 중국인 최초로 레닌과 회견을 하기도 했다. 石川禎浩, 2007, 「コミンテルン大会の中国代表」, 『初期コミンテルンと東アジア』, 不二出版, 239-240쪽.

이루기 위해 연합군대와 연립정부를 조직하려는 구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비록 짧은 기간에 존속하였지만, 동 혁명위원회는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전개된 사회주의 혁명운동 속에서 나타난 한몽 연대의 정치적 시도로서, 후일 코민테른의 동아시아 혁명사업을 주도한 '극동비서부'의 모태가 되었다.

당시 시베리아 지역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한인 사회주의 조직은 이르쿠츠크를 중심으로 그 세력을 확장해가고 있었다. 이르쿠츠크파의 경쟁 세력으로 상해를 중심으로 한 이동휘 휘하의 한인사회당도 한인 사회주의운동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러시아 정부와의 교섭에 힘을 기울였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1919년 상해파의 기원인 한인사회당은 러시아 정부와 코민테른과의 교섭을 위해 박진순, 이한영, 박애를 모스크바에 파견하였다. 그 성과로 러시아 외무인민위원부로부터 400만 루블의 제1차 자금을 지원받게 된 상해파는 러시아 정부로부터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

박진순, 이한영, 박애 대표단이 러시아 정부와의 외교교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던 1920년 4월경은 동아시아 혁명사업의 통합 조직으로 이르쿠츠크에서 '중한몽일 혁명위원회'가 비밀리에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때였다. 향후 국내외 한인 사회주의운동을 통합할 주도권 문제를 놓고 이르쿠츠크파와 상해파 간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려는 시기에 중한몽일 혁명위원회가 이르쿠츠크에 설립되었던 것이다. 이후 상해파 측은 이미 제1차 자금지원을 통해 러시아 정부로부터 얻은 주도권이 상실되는 데에 크게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우려는 박진순이 레프 미하일로비치 카라한에게 보낸 편지에서 잘 나타나고 있었다. 박진순은 동아시아 혁명운동의 근거지를 이르쿠츠크에 두는 것을 반대하며 “모험을 찾아다니는 여러 등급의 단순 협잡꾼이 있는 이르쿠츠크가 아닌 오랜 혁명 경험으로 뛰어난 활동가가 많은 극동지방에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sup>11)</sup> 사실 박진순은 이한영, 박애를 먼저 상해로 귀환시킨 뒤 러시아에 잔류하여 1920년 7월에 개최되는 제2차 코민테른 대회에 참석하였다. 여기서 박진

10) 이인섭, 1995, 앞의 책, 214-219쪽; 이인섭, 2010, 앞의 책, 536-545쪽.

11) 임경석, 2003, 『한국 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186쪽.

순은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위원 및 코민테른 재외전원위원이라는 자격을 맡게 되면서 일본, 중국, 한국 민족혁명가들의 연합기관을 결성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박진순의 외교 성과와 달리 이르쿠츠크에서는 중한몽일 혁명위원회를 이어 1920년 7월 하순 ‘러시아공산당 시베리아국의 동양국(이하 동양국 약칭)’이 조직되자 동아시아 혁명운동의 중심이 이르쿠츠크로 옮겨지게 되었다.<sup>12)</sup> 동양국은 극동비서부 설립 이전에 이미 조직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중한몽일 혁명위원회는 이후 동양국, 극동비서부로 그 기능과 조직이 승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양국 산하에는 중한몽일 혁명위원회에서 조직된 4개의 민족 간 연대를 그대로 승계하여 한족부·중국부·몽골부·일본부 등 네 개의 민족별 부서가 설치되었다. 전권대표에 곤차로프(Goncharov),<sup>13)</sup> 부장에 부르트만,<sup>14)</sup> 부부장(副部長)에 가폰(F.I. Gapon)이 임명되었다.<sup>15)</sup> 동양국의 각 민족부 책임자는 러시아인으로 한족부장에는 게르세비치(Gershevich), 중국부장에는 아브람손(Abramson), 몽골부장에는 보리소프(Borisov)가 맡았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당시 몽골부 서기로 1921년 몽골혁명의 주역인 엘베크도르지 린치노(Elbegdorj Rinchino, 1888~1938)가 활동한 사실이다.<sup>16)</sup> 린치노는 동양국 산하 몽골부에 소속되어 1920년 6월 창립된 몽골인민당과 소비에트러시아 간의 교섭을 이끈 인물로, 본고에서 주목하는 남마리아의 남편이기도 하다.

12) 임경석, 2003, 앞의 책, 187쪽.

13) 곤차로프는 1919년 이후부터 시베리아 총회의 위원을 지냈으며, 1920년 여름에는 시베리아 총회의 ‘동방사업 전권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이를 계기로 그는 러시아공산당 시베리아 총회 내에서 동양의 소수민족 혁명운동을 담당하는 최고책임자가 되었다. 시베리아 총회의 소재지가 옴스크였기 때문에 그 위원인 곤차로프는 주로 옴스크에서 활동했다. 임경석, 2003, 앞의 책, 235쪽.

14) 부르트만은 소년기부터 혁명운동에 종사한 열렬한 공산당원이었다. 15세부터 혁명운동에 투신했고, 1917년 가을부터 하얼빈·일본·연해주 등지에서 청년운동과 사회주의운동에 종사했다. 1920년 3월 베르호네우딘스크에서 성립한 극동공화국의 내각총무로 취임했으며, 1920년 8월 1일 정식으로 설립된 동양국의 책임자가 되었다. 직함은 ‘동양국장(председатель Секции)’이었다. 동양국의 소재지는 이르쿠츠크였기 때문에 부르트만의 주된 근무지는 이르쿠츠크였다. 따라서 이르쿠츠크 한인공산당 중앙총회의 상급 파트너는 부르트만이었다. 임경석, 2003, 앞의 책, 235쪽.

15) 青木雅浩, 2011, 『モンゴル近現代史研究 1921-1924年 -外モンゴルとソヴィエト, コミンテルン-』, 早稲田大学出版部, 25쪽.

16) 二木博史, 1995, 「リンチノとモンゴル革命」, 『東京外国語大学論集』 51, 91쪽.

동양국의 한족부는 민족별 집행부 가운데 가장 먼저 설립되었는데 이는 '전로한인공산당(全露韓人共產黨) 중앙총회'가 동양국의 한족부로 귀속된 것이다. 전로한인공산당 중앙총회는 러시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한인 사회주의자들을 관할하는 새 집행기구로서 1920년 7월 개최된 전로한인공산당 대표자회의에서 결성되었다. 그러나 한국 혁명운동을 대표하는 기관이 형식상 러시아공산당 지방기관인 동양부의 하부 부서로 편제되어 버리자 한인 사회주의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1921년 1월 15일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소위원회는 동양국을 코민테른에 이관하기로 결정하고 2월 동양국을 코민테른이 관할하는 극동비서부로 개편하였다. 그리하여 그동안 혼선을 빚었던 동아시아 혁명사업은 코민테른의 극동비서부로 통일될 수 있었다.<sup>17)</sup> 결국 동아시아 혁명사업을 둘러싼 러시아공산당, 코민테른, 외교부 전권위원 기관들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혼선은 한인 사회주의 두 파벌 사이의 대립을 증폭시키는 주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극동비서부는 “중국, 일본, 한국, 티베트 및 몽골의 모든 사회주의 사업과 혁명 사업을 조정하는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산하에 총무부를 비롯한 5개 집행부서와 한국, 중국, 일본, 몽골·티베트, 네 개의 민족별 지부가 조직되었다. 극동비서부의 책임자로 임명된 슈마츠키(B.Z. Shumyatsky)는 극동비서부 설립 이후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그는 1920년을 전후하여 몽골 사회주의 혁명운동에 깊이 관여한 러시아 측의 인사로 꼽힌다.<sup>18)</sup> 한인 사회주의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보이친스키(G.N. Voitinsky)<sup>19)</sup>는 간부회 위원에 임명되었다.

17) 그동안 동아시아 혁명사업은 코민테른·러시아당 중앙위원회·외무인민위원회 등이 총괄적인 계획 없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혼선을 빚었다. 현지 파견자들은 서로 소식을 주고받지 못했으며, 협력체계도 갖추지 못했다. 예컨대, 박진순은 코민테른 재외전권위원 자격으로 동양공산당 설립을 추구하고, 이르쿠츠크의 러시아인들은 러시아공산당 시베리아국 산하 동양국을 세웠다. 또한 상해에서는 코민테른 임시 동아시아비서부가 형성되었다. 코민테른 소위원회의 1921년 1월 15일 자 결정은 이 혼선에 종지부를 찍었다. 임경석, 2003, 앞의 책, 299-300쪽.

18) 青木雅浩, 2011, 앞의 책, 29쪽.

19) 보이친스키는 20세 초반 미국과 캐나다에서 생활하다가 1917년 러시아혁명이 일어나자 귀국하여 러시아공산당에 입당했다. 내전 기간에는 크라스노야르스크, 옴스크 지구에 들어가 백위군과 맞서 투쟁했다. 1919년 5월에는 블라디보스톡에서 투옥되어 사할린 섬으로 유배되어 1920년 1월에

극동비서부의 한국지부에는 한명세(韓明世), 최고려(崔高麗), 이형근(李亨根)이 맡았다.<sup>20)</sup> 이전 동양국의 각 부서의 조직과 사람이 극동비서부에 그대로 인계되었기 때문에 동양국의 한족부를 겸했던 전로한인공산당 중앙총회도 자연히 코민테른 극동비서부의 산하기관으로 재편되었다. 이를테면 극동비서부 한국지부는 이르쿠츠크파가 주축이 된 전로한인공산당 중앙총회와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일체였다.<sup>21)</sup> 이를 계기로 이르쿠츠크파는 코민테른의 동아시아 혁명사업에서 주도권을 잡는 데에서 유리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몽골·티베트 지부의 서기는 이전 동양국의 산하 몽골부 서기였던 린치노가 그대로 인수하여 동아시아 혁명사업의 몽골 측 대표로 전면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1920년대 초 한몽 연대의 정치적 기반은 중한몽일 혁명위원회, 동양국, 극동비서부라는 동아시아 혁명운동의 통합조직을 통해 형성되었다. 이는 러시아에서 태동한 사회주의 혁명의 흐름 속에서 제국주의 일본에 맞서 한국과 몽골이라는 약소민족 간의 연대가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당시 러시아 측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혼선으로 인해 한인 사회주의운동 내에서의 파벌 싸움이 증폭되면서 이후 실질적인 한몽 연대 활동으로 이어지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비록 실질적인 한몽 연대의 정치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4개의 민족별 연대라는 구상을 통해 린치노와 남마리아 간의 만남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두 사람의 결혼은 몽골 내에서 한인의 입지를 확대하는 데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혼선을 빚었던 동아시아 혁명운동이 끝내 코민테른의 극동비서부에 의해 통일되면서 그 첫 단계로 1921년 개최된 ‘극동민족대회’를 통해 한몽 연대는 보다 구체성을 띠게 되었다.

풀려났다. 이때부터 그는 러시아 영토 밖의 해외 사회주의운동에 가담하여 그해 봄 중국에 파견된 후 코민테른과 러시아공산당 내에서 손꼽히는 중국 전문가로 활약했다.

20) 임경석, 1999, 「극동민족대회와 조선대표단」, 『역사와현실』 32, 37쪽.

21) 임경석, 2003, 앞의 책, 193쪽.

### Ⅲ. 극동민족대회와 동아시아 사회주의 혁명운동

1921년 11월 말 여운형은 이르쿠츠크에서 열리는 ‘극동민족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몽골의 수도 후레(오늘날 울란바타르)를 방문하였다. 그는 중국 천진을 출발하여 국경도시 장가구(張家口)에 도착한 후 거기서 자동차를 이용해 후레에 도착하였다. 당시 여운형의 몽골행에는 김규식, 나용균이 동행하였으며, 초행길이었던 여운형은 이미 두 차례 몽골을 방문한 경험이 있었던 김규식의 안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김규식은 20세기 초 한몽 교류의 문을 연 인물로 1914년 군관학교를 세울 목적으로 유동열, 이태준, 서알보를 데리고 몽골 땅을 처음으로 밟았다.<sup>22)</sup> 이후 독립자금 문제로 군관학교 설립은 실현되지 못하였지만, 김규식은 몽골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며 이태준이 몽골에서 근대 병원을 통해 한국 독립운동의 새로운 거점을 마련하는 데에 노력하였다. 1918년도에는 이태준과 결혼할 자신의 사촌 여동생 김은식과 함께 두 번째로 몽골행에 올랐고, 1921년 극동민족대회를 참석하기 위해 여운형과 함께 세 번째로 몽골을 방문했다.

1921년 겨울 여운형 일행이 몽골을 방문했을 때는 몽골 인민혁명의 여운이 채 가지지 않아 정치적 불안이 감돌고 있었다. 사실 여운형은 만주를 경유해 시베리아철도로 러시아에 갈 예정이었으나, 당시 세미노프 백군이 퇴각한 이후에도 시베리아와 만주 지역에 여전히 일본 세력이 남아서 한인 독립운동가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감시가 덜한 몽골경유노선을 택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여운형, 김규식, 나용균 등의 민족주의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몽골을 경유해 극동민족대회에 참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극동민족대회는 1921년 11월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워싱턴회의’에 대항하여 같은 날 이르쿠츠크에서 코민테른 극동비서부의 주최로 열릴 예정이었다. 워싱턴

22) 오미영, 2022, 「1910년대 한국 독립운동과 몽골: 김규식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8을 참조.

회의는 제1차 대전이 끝난 후 승전국 미국·영국·프랑스·일본이 주도하여 아시아·태평양 일대의 신질서 수립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기 때문에 약소민족 문제, 특히 한국의 독립문제는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sup>23)</sup> 반면 코민테른은 동아시아 피압박민족의 해방과 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로 극동민족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유럽 및 미국 열강의 기대에 크게 실망한 민족주의 한인 인사들은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극동민족대회에 참가하였다.

극동민족대회 참석 길에 이루어진 몽골 방문이었지만, 여운형의 몽골행은 한몽연대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두 가지 사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첫 번째로 여운형이 후레에서 8일을 체류하는 동안 한인 2세 남마리아와 그의 남편이자 몽골의 혁명가 린치노를 조우한 점이다. 린치노는 부리아트 출신의 몽골인으로 1921년 몽골 인민혁명을 승리로 이끈 주역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는 혁명 정부 시기인 1921년부터 1925년까지 몽골 정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지만, 1925년 주몽골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대표로 파견된 리스쿨로프와의 갈등으로 본국으로 추방을 당한 뒤 몽골에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그는 젊은 시절 볼셰비키계의 사회민주노동당에 가담한 후, 거기서 볼셰비키의 지도자 슈마츠키와 맺은 인연으로 훗날 코민테른 극동비서부 관하의 몽골·티베트 서기직을 맡게 되었다.<sup>24)</sup> 극동비서부에 근무하던 린치노는 극동비서부의 (비밀문서) 타자수였던 남마리아를 만나 결혼하였고, 이후 몽골로 발령을 받아 몽골로 이주하였다.

남마리아는 초기 사회주의운동에 깊이 관여된 인물로 그녀의 가족은 20세기 초 이르쿠츠크파 한인 사회주의운동을 이끌었던 주요 인사들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러시아 초기 사회주의 운동가 남창석이며, 그녀의 오빠는 1920년 러시아공산당 산하 이르쿠츠크위원회 한인부 회장으로 한인무장부대인 고려특립중대를 조직해 항일운동을 펼친 남만춘이다.<sup>25)</sup> 그녀의 언니는 초기 여성 사회주의자 남

23) 김준엽·김창순, 1986, 『韓國共產主義運動史 1 (資料篇)』,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43쪽.

24) 二木博史, 1995, 앞의 논문, 244쪽.

25) 남만춘의 활동은 강만길·성대경, 1996,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비, 159쪽; 마프베이 씨 모피예비치 김, 이준형 역, 1990, 「남만춘」, 『일제하 극동시베리아의한인 사회주의자들』, 역사비평사, 135-137쪽 참조.

수라이며 이르쿠츠크파 사회주의 운동가 채성룡의 부인이기도 하다.<sup>26)</sup> 채성룡은 앞서 II장에서 언급한 증한몽일 혁명위원회에서 서기를 맡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남마리아의 집안 이력은 극동비서부에서 린치노를 만나기 이전, 언니와 형부를 통해 동아시아 및 몽골 간의 연대를 모색할 수 있었던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극동비서부 한국지부는 이르쿠츠크파가 주축이 된 전로한인공산당 중앙총회의 동일체이었다. 당시 중앙총회에서 오빠 남만춘과 형부 채성룡이 주요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기에 남마리아를 매개로 몽골의 혁명 인사와 이르쿠츠크파 한인 인사 간에 상호 교섭이 이루어졌을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남마리아는 그동안 국내 학계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로 당시 몽골을 방문한 한인들의 기록을 통해 그녀의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에 대해 여운형은 다음과 같이 자세히 기록했다.

그의 부인 되는 마류사·남(南)은 블라디보스토크 태생의 조선부인 남만춘(南萬春)의 둘째 매씨(妹氏)소위 얼마재(2세)라 한다. 모스크바에서 미술을 연구하고 있을 때에 '에린치노프'와 서로 알게 되어 마침내 국제결혼을 한 후 부군(夫君)을 따라 이곳에 왔다 한다.<sup>27)</sup>.... 고료 도착 후 제 3일에는 옥홀라의 만찬 초대가 있었고 그 다음날에는 에린치노프의 초대연이 있었다. 마류사·남은 이 밤 초대연에는 조선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서 나를 맞았다. 미술을 연구한 사람인만큼 예술 방면에 취미와 교양이 넓고 깊은 그는 러시아민요의 훌륭한 가수(歌手)였다. 나는 그에게서 몇 마디의 감명깊은 노래를 들었다. 그중에 동해 백두산과 남러시아의 '코삭크'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것은 그 가사와 곡조를 모조리 잊어버린 지금도 그 노래의 정서와 분위기만은 아득히 기억에 살아 있어 그날 밤을 상기할 때마다 마음속에 저윽히 배회할 만큼 깊은 감동을 나에게 주었던 것이다. 마류사·남은 난지 두어 달 된다는 어린애를 유모에게 안겨서 나왔으나 그의 젊은 빛이 붉게 타오르는 뺨과 맑게 검은 눈동자는 그의 목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에 따라 놀랄 만큼 자유롭게 대담한 변화를 표시하였다. 가슴을 높이 내어 놓으면서 길게 내뿜는 목소리가 고조와 감동의

26) 이인섭, 1995, 앞의 책, 27쪽.

27) 여운형, 1936, 「나의 회상記 第三篇」, 『중앙』 5월호, 79쪽.

절정에 달해야 거기서 질식이나 할 듯 하다가는 별안간 돌연히 먼 지평선에서 들려 오는 한숨소리나 같은 나지막하고 저속한 탄식이 이 고조된 감정을 숨씨 좋게 고요한 영탄으로 이끌어 내리는 것이었다. 때로는 승리의 고양(高揚)이, 때로는 패배(敗北)의 절망(切望)이 마치 서로 도망하고 쫓아가고 하는 듯이 얽히면서 실로 변화 많은 멜로디의 세계를 유감없이 전개하여 주었다.<sup>28)</sup>

여운형에 따르면 남마리아는 모스크바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한 한인 2세 고려인으로 뛰어난 예술성과 교양을 지닌 인물이었다. 특히 여운형은 그녀의 뛰어난 가창 실력에 찬사를 보냈다. 그녀의 가창 실력은 몽골 정부도 높이 인정한 바가 있다. 몽골 자료에 따르면 1924년 11월 26일 제1차 국가대회 경축 자리에서 남마리아가 인터내셔널 노래<sup>29)</sup>을 몽골어로 번역하여 불렀다고 한다.<sup>30)</sup> 또한 그녀가 몽골을 떠나기 직전의 행적도 몽골 자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925년 3월 최초로 몽골에서 여성 잡지가 창간되었는데 당시 편집위원에서 남마리아가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었다.<sup>31)</sup> 여성 잡지를 통해 신지식 여성들이 여성 권리, 문맹 퇴치, 정치 활동 등의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만큼 남마리아는 남편의 실권 아래 몽골 정부 내에서 어느 정도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마리아는 몽골에 체류하는 동안 몽골을 거쳐 중국과 러시아를 왕래했던 한인 인사들의 체류와 이동에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장건상의 <몽골 여행기>에 따르면 “우리가 몽고의 수도에 도착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몽고 족장의 처가 찾아왔는데 놀랍게도 한국 여인이어서 반가운 대접을 받았다. 그녀는 러시

28) 여운형, 1936, 앞의 책, 80-81쪽.

29) 인터내셔널 노래는 1922년부터 1944년 소비에트정부 시절의 국가(國歌)이다. 1871년 파리코뮌이 한창이었을 때에 외젠 포티에(Eugène Pottier, 1816년~1887년)가 프랑스어 원 가사를 썼고, 이후 1888년에 피에르 드제이테(Pierre Degeyter, 1848년~1932년)가 가사에 곡을 붙였다. 이 노래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노래 중의 하나이며, 러시아어판은 한때 소비에트 연방의 국가로 채택되어 1922년부터 1944년까지 불렀다.

30) 二木博史, 1995, 앞의 논문, 251쪽.

31) Д.ЦЭНД, 2022, 『МОНГОЛЫН ЭМЭГТЭЙЧҮҮДИЙН ХЭВЛЭЛИЙН ХӨГЖЛИЙН СҮД АЛГАА』, ҮБ, 32쪽.

아에 살고 있던 한국여자로 몽고 족장이 러시아에 와 결혼했다는 것이었다. 그녀한테서 이르쿠츠크로 가는 길을 자세히 듣고 (중략)라고 전하였다.<sup>32)</sup> 장건설에 이어 그해 가을 몽골을 찾은 여운형 일행도 남마리아로부터 러시아로 가는 이동과 체류 허가에 대한 모든 편의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몽골에서 여운형은 남마리아를 통해 여러 편의를 제공받았지만, 그녀의 남편이자 몽골의 혁명가인 린치노와의 정치적 교섭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다. 이는 한몽 연대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여운형과 몽골대표단이 극동민족대회에 동행한 사건을 통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당초 계획보다 4, 5일을 더 후레에 머물게 된 여운형은 극동민족대회에 참석할 몽골대표단과 함께 소비에트러시아로 출발하기 위해 그들의 준비가 끝나기를 기다려야 했다. 당시 몽골대표단의 단장을 맡은 인물은 야폰 단장으로 그의 정식 이름은 아즈와긴 단잔(Ajvaagiin Danzan)이다. 그는 북드 칸정부 시기부터 외교 인사로 활동하며 일본과 깊은 관계를 가진 이유로 몽골어로 일본이라는 뜻의 야폰(Yapon)을 붙여 ‘야폰 단잔’이라고 불렸다. 야폰 단잔의 인솔을 받으며 여운형, 김규식, 나용균이 극동민족대회에 참가한 사실에서 비춰보면 사회주의 혁명의 격동 속에서 한몽 정치 인사 간의 교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양국 대표단의 동행은 20세기 초 독립과 민족해방이라는 목표 아래 강대국의 지원이 불가피했던 약소민족이 소련의 지원에 대해 공동의 보조를 취했음을 보여준다.

여운형은 8일간 후레에서 체류하는 동안 소비에트러시아로 가기 위한 준비로 몽골 외무부에서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했다. 허가증 발급에서 몽골대표단과의 동행에 이르기까지 남마리아의 도움이 있었다. 당시 외국인이 몽골 영토를 통과하거나 체류하기 위해서는 몽골 정부로부터 ‘거주허가증(Хугацааны тэмдэгт бичиг)’<sup>33)</sup>과 ‘통행허가증(Зам явах тэмдэгт бичиг)’<sup>34)</sup>을 발급받아야 했다. 1911년 북드칸 정

32) 광상훈, 1966, 『事實의 全部를 記述한다-장건설 편』, 希望出版社, 414-416쪽.

33) Х. Мэндсайхан, 2012, 『Монгол улс дахь гадаадын иргэдийн харьяаллын асуудал (1921-1940)』, УБ, 10쪽.

34) ФХ4-Д1-247.

권 수립 이후 중국 상인들의 악덕 고리대금업이 성행하면서 이에 몽골인들의 채무 부담이 점점 늘어나자 몽골은 중국 상인의 입국을 규제하는 방안으로 몽골을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거주허가증'을 발급하였다. '거주허가증'은 몽골 외무부가 발급하고 세금을 징수하였기에 오늘날 '비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통행허가증'은 몽골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몽골 지역 내를 이동할 때 필요한 것으로 신분증인 동시에 역참 통행증의 성격을 지녔다. 중국에서 후레까지 자동차로 이동할 수 있었지만, 후레에서 소비에트러시아로 가는 길은 역참 시설을 통해 말과 마차로 이동해야 했기에 여운형은 몽골 정부의 승인과 지원이 불가피했다. 남마리아의 소개로 아폰 단장을 알게 된 여운형 일행은 큰 어려움 없이 역참로를 이용해 소비에트러시아 국경을 넘을 수 있었다. 몽골 정부의 허가 없이는 몽골에 체류하거나 경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운형 일행을 비롯해 적지 않은 한인 인사들이 몽골행에 오를 수 있었다는 점은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몽골 정부의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준다.

교통수단 외에도 몽골 국경을 넘는 데에는 운거운 백군과의 내전 여파로 각지에 잔존한 백군 세력의 위협이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그리하여 여운형 일행은 아폰 단장을 필두로 한 몽골대표단의 보호와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국경을 넘을 수 있었다. 양국 대표단의 동행에서 주목하여 살펴볼 점은 여운형과 아폰 단장이 향후 그들이 지향하는 혁명운동에 관해 나눈 대화 내용이다.

민중을 지도하려는 자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참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더욱이나 그들의 정신생활의 낡은 습관에 대하여서는 무섭게 보수적입니다. 十수세기를 통하여 그들의 정신생활을 지배하여 온 후둑두·칸(활불活佛)의 영향을 일조일석에 뿌리 뽑으려고 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공상이외다. 민중을 항상 벗으로 삼으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낡은 편견과 미신 등 온갖 그들의 정신적 질병을 깨끗이 씻어 내려면 끈기 있게 서서히 꾸준하게 그들을 가르치고 계몽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리하여 혁명정부가 취한 종교정책은 라마교사원의 파괴도 아니고 그 재산의 몰수나 승려의 추방도 아닙니다. 오직 순결무후한 원시적 불교로 돌아가려는 슬러건 뿐이었습니다.<sup>35)</sup>

위의 대화에서 야폰 단장은 몽골혁명을 이루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하고 있었지만, 전통적 라마교의 몰살을 경계하여 급진적 혁명이 아닌 점진적 혁명론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여운형의 의견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후 레닌과의 회담에서 '한국의 혁명 과정은 민족적 해방운동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언급에서 유추해 볼 때 그도 점진적 혁명론을 피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양국의 혁명가는 사회주의혁명을 실현하기 위해 점진적 혁명론에 뜻을 같이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외교 노선에 있어서는 극명한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었다. 야폰 단장은 1911년 청으로부터 몽골 독립을 선언한 복드 칸 정권 시기에 일본 정부와 긴밀히 소통했던 외교 인사이었다. 이후 그는 1923년 주소련 몽골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시기에 러시아에 억류된 일본인의 구출을 지원할 정도로 친일적 외교 행보를 보였다.

야폰 단장과 함께 인민 정부를 이끌었던 남마리아의 남편 린치노도 이전 일본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인물 중의 한 명이다. 그는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부리아트-몽골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1919년 세모노프와 일본이 도모한 '범(汎)몽골국' 건설에 동참하였다.<sup>35)</sup> 범몽골국 건설은 일본이 내·외몽골, 부리아트, 청해(靑海), 신강(新疆) 등 전역에 흩어져 있는 전몽골족을 통합하여 그들을 자신의 지배권에 놓으려는 의도에서 구상되었다. 당시 범몽골국 건설에 부리아트 대표로 참여했던 린치노는 몽골을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로 만들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sup>37)</sup> 즉 그는 내외몽골을 통합하여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완충적 역할을 하는 중립국을 건설하려고 했다. 외몽골 인사를 제외하고 부리아트, 내몽골, 바르가 지역에서 참석한 몽골인 14명이 모여 임시정부를 선포하였지만,<sup>38)</sup> 외몽골 측의 불참과 조

35) 여운형, 1936. 앞의 글, 83쪽.

36) 生駒雅則, 1994. 「シベリア内戦とブリアート・モンゴル」, 『スラヴ研究』 41, 192쪽.

37) 二木博史, 1997. 「大モンゴル国臨時政府の成立」, 『東京外国語大学論集』 54, 51쪽.

38) 二木博史의 연구에서는 부리아트 6명, 내몽골 5명, 훌룬보이르 3명으로 총 몽골인 14명과 그 외에 티베트 대표 1명, 세모노프부대 소속 3명, 일본 3사단 소속의 鈴木大尉가 참석했다고 한다. 서양중의 연구에서는 몽골인 15명 외에 일본인 鈴木, 黒木 2명이 참석하였다고 한다. 二木博史, 1997.

직 내의 갈등, 일본의 정책 변경 등의 요인으로 범몽골국 건설은 실패로 돌아갔다. 실패 이후 린치노는 몽골혁명 전선에 뛰어들어 코민테른과 몽골 간의 교섭을 위해 활약했다. 당대 몽골 정치 인사 린치노, 아폰 단잔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몽골은 중국의 지배에 벗어나기 위해 일본을 협력의 외교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1921년 몽골을 방문하기 직전 여운형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항하여 중국으로 망명한 뒤, 중국의 지원을 통해 한국 독립을 쟁취하려 했던 한중 연대론자의 한 사람이었다. 한국 독립운동 초기 여운형을 비롯해 중국으로 망명한 민족주의 한인 인사들은 신해혁명을 목도하며 중국과의 연대를 통해 한국 독립을 쟁취하려는 구상을 가졌다. 이에 따라 일본의 식민지에 들어간 한국은 중국의 혁명을 도와 한국 독립을 쟁취하려 했던 반면 몽골은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과의 교섭을 모색하려 했다. 이처럼 20세기 초 한국과 몽골의 혁명가들이 보여준 상반된 외교 인식은 양국의 교류와 연대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 IV. 시베리아 한인들의 몽골 이주

1921년 인민혁명 성공으로 근대적 국민국가로의 이행을 본격화했던 몽골은 일제 식민지 지배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한인에게 새로운 기회의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실제로 혁명 이후 몽골 후련에 체류하던 한인과 몽골 귀화를 희망한 한인들의 이름이 현재 몽골 국립중앙 문서보관소의 자료에서 다수 확인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금령(禁令)을 어기고 아편(阿片)을 재배한 한인 김체젠 등 5명이 체포됨.  
(1922.08.11)

앞의 논문, 43쪽; 서양중, 1989, 『外蒙古 問題에 關한 中蘇對立과 協商過程』,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44-45쪽.

- 2) 금령을 위반하고 아편을 재배한 이유로 국경으로부터 추방당할 한인 김체젠 등을 린치노의 아내가 보증하여 날씨가 따뜻할 때까지 거주하도록 청원함. 이에 몽골 정부가 받아들임. (1922.10.09)
- 3) 금광을 몰래 찾으려다 발각되어 추방될 한인 네 명에게 필요한 말 두 필, 마차가 딸린 말 두 필, 말을 탄 마부 두 명을 팔려 허가증을 발급함. (1922.12.12)
- 4) 페트로그라드의 한인 노동연맹 위원장인 최(崔)가 구호를 요청하기 위해 몽골에 들어와 역마 사용 증서를 발급함. 최가 돌아갈 때, 대동한 사람이 이용할 마차 2대, 말을 탄 역참(驛站)의 마부 2명을 역참마다 사용하는 5일 기간의 역부(驛傳) 통행허가증을 발급해줌. (1923.08.28)
- 5) 신분증을 분실한 한인 틴보에게 체류 허가를 해줌. (1924.01.10)
- 6) 내무부에서 한인 남창석이 귀화를 요청함. (1926.07.05)
- 7) 톨고이트의 금광지역 조합의 제2 상점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이인추가 거주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요청함. 박영식이 보증함. (1926.12.13)
- 8) 1920년 카흐타를 경유하여 후레에 들어온 한인 이용국이 1925년 거주증을 잃고 살다가 체포됨. 그는 구(舊)재무부에서 러시아 중국어의 통역원으로 일했음. (1926.12.15)
- 9) 한인 홍성룡(洪成龍)이 거주증을 잃어버린 박영식의 벌금 면제를 위한 청원서를 올림. (1929.05.29)

위의 문서는 주로 한인들이 몽골 정부에 거주허가증과 통행허가증을 발급을 위해 제출한 청원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기에서 김체젠, 틴보, 남창석, 이인추, 이용국, 홍성룡 등의 한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대체로 생활고로 몽골에 귀화·거주를 희망하는 재러시아 이주 한인들로 추정된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한인들의 몽골 입국 및 체류 문제에 남마리아가 관련한 사실이다. 남마리아는 신분증 없이 몽골에서 아편을 재배한 이유로 몽골에서 추방당할 위기에 있는 김체젠 외 한인 5명을 보호해줄 것을 몽골 정부에 청원하였다.<sup>39)</sup> 또한 그녀는 부친 남창석을 몽골로 불러들여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39) Ж.Баттөр, 2000. 『XX зууны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 I, УБ, 178쪽.

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1921년 혁명 이후 몽골 광산업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시베리아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몽골 금광에 관심을 가지고 몽골로 이주하였다. 그 가운데 주목되는 인물은 남마리아의 부친인 남창석으로, 그가 몽골 금광에서 근무한 사실이 몽골과 일본 측의 문서에서도 확인된다.

하지만, 1925년 린치노와 남마리아가 소련 본국으로 소환되자, 스스로 몽골에서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남창석은 1926년에 몽골 국적을 취득하여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몽골 정부에 청원서를 올렸다.<sup>40)</sup> 청원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었다.

현재 톨고이트 금광에 고위 '최'와 관리자인 한국 국적의 남첸식이 청원 사유 '본인은 14년 데드 우드<sup>41)</sup>를 통해 경유하였고 1856번 러시아 신분증과 외무부에서 15년 10월에 발급받은 2650호 몽골 신분증으로 거주하고 있다. 제 나이 55세에 29세의 아내와 어린 4명의 딸과 거주하고 있다. 현재 본인은 몽골 국적을 얻어 너엥 올린 허쇼니 할롱 오싱 라샹 지역에서 농사하기를 원하며, 이후 어떤 상황에도 몽골 국민과 같이 몽골법에 따르겠다고 몽골 내무부에 알려 드린다. 이를 검토하시어 제 청원을 받아들여주시기를 바란다.'<sup>42)</sup>

남창석 외에도 「재몽골 외국인등록 문서」<sup>43)</sup>와 후레 행정관리국에 올린 「홍모린(공모린)의 귀화 청원서」<sup>44)</sup>에서 방양인(박장인), 잔보(진보), 홍모린(공모린)이라는 한인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재몽골 외국인등록 문서」에는 후레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성명, 나이, 출신지, 외국인등록번호(거주 허가증번호), 현주소, 등록 일자, 세금 납부 등의 항목들이 자세히 기재되었다. 동 문서에서 박양인은 흥천 출신으로 1922년 6월 몽골에 입국하였고, 잔보는 대천 출신으로 1922년 6월에 입국한

40) Ж.Баттөр, 2000, 앞의 책, 165쪽.

41) 오늘날 러시아 부랴트 공화국의 수도인 울란우드를 지칭한다.

42) Ж.Баттөр, 2000, 앞의 책, 165쪽.

43) 몽골 국립중앙문서보관소 ФНА1-Д1-208.

44) 몽골 국립중앙문서보관소 ФА-1-Д1-855.

사실을 알 수 있다. 잔보는 위의 몽골 국립중앙문서보관소 문서에서 언급된 퉁보와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데 이 이름은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庫倫在住鮮人二関スル件」 문서<sup>45)</sup>에서도 확인된다. 동 문서에는 “몽골어로 ‘잔보(잡보)’라는 한인은 치타공산당학교 출신으로 청년회에서 상당한 활동을 했다.”라고 기록되었다.

「홍모린(공모린)의 귀화 청원서」에는 1928년 12월 31일 홍모린이라는 한인이 몽골에 귀화를 요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었다. 홍모린은 “생활고로 고향을 떠나 외국을 전전하다 몽골에 입국한 지 3년이 되었다. 단신인 저는 몽골 노동조합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향후 몽골에서 생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몽골 인민공화국의 국민이 되기를 요청한다.”라고 전했다. 홍모린의 청원글 뒤에는 ‘맨드세한’이라는 몽골인이 홍모린의 귀화를 보증한다는 내용도 첨부되어 있다.

당시 한인들의 몽골 이주에 대한 몽골 정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몽골 정부에 보낸 최치언의 청원서에 주목하고자 한다. 동 청원서는 현재 몽골 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으며 동 문서에는 한인 노동자연맹 위원장 최치언이라고 새긴 직인이 그대로 남아 있다. 1923년 5월 22일자 최치언의 청원서에는 굶주리는 한인 어린이를 위해 몽골 정부에 다음과 같은 요청이 기록되었다.

페트로그라드에서 소련 정부, 한인 노동자연맹 위원장 최:

몽골 인민 정부에게

복드 칸, 삼가 폐하께 아뢰옵니다. 우리 한국은 과거 몽골과 우호적인 나라였습니다. 서부 러시아에 주둔하던 수십만 명의 한인 군인들이 전쟁으로 손해를 입어 많은 고아가 발생하였고, 오래된 농업 시설은 더이상 수익성이 없습니다. 인민에게 신뢰를 받는 최는 모든 인민을 대표하여 폐하에게 이 고아들의 교육과 양육을 위한 특별 기관을 설립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 기관을 설립하고 집 없는 사람들과

45)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4-3-2.2-1-2 在シベリア Vol.16. 「庫倫在住鮮人二関スル件」1926년 11월 25일.

끓주리는 사람들을 위한 추가 주택을 건설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외화가 필요합니다.

북드 칸께서 우리의 끓주린 인민과 고아들의 교육에 큰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최치헌의 청원에 따라 몽골 정부는 교육부와 외교부에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대해 주소련 몽골대사관 측에서 진상 규명에 나섰다. 처음 몽골 정부는 최치헌의 청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한인을 지원하기로 승인하였지만, 최치헌을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인지, 또한 지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주소련 몽골대사관을 통해 신변 조사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최근 최치헌이 노동자연맹 위원장에서 해임된 사실을 확인하자, 몽골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최종적으로 지원금 지급을 철회하기로 하였다.

당시 몽골 정부의 입장 변화에는 최치헌에 대한 신변 조사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그 외에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924년 소련은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외교 관계 수립을 추진해 나갔고, 그해 3월 일본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양측은 협상에 들어갔다. 당시 양국이 외교 수립을 위해 해결해야 주요 사안은 소련 정부가 한인 난민을 지원하지 않고, 일본 정부도 백군의 난민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후 1925년 1월 20일에 소련과 일본이 관계 정상화를 위한 '소련·일본 기본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소련 내의 한인에 대한 모든 지원과 활동은 전면 중단되었다.<sup>46)</sup> 이러한 소련의 대외 정책 변화에 따라 몽골 정부도 한인 지원에 대한 정책과 인식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

46) Д. Уламбаяр, 2013. 「СОЛОНГОСЧҮҮДААС БОГД ХААНД ӨРГӨСӨН АЙЛТГАЛ БИЧИГ, ТҮҮНИЙ ХҮВЬ ЗАЯА」, 『Монгол Улс, Алс Дорно дахин: Олон улсын харилцаа, геополитик, дипломат ажиллагаа』 I, УБ, 343쪽.

## V. 결론

본 논문은 1920년대 사회주의 혁명 시기에 전개된 한몽 연대의 시도와 그 한계를 규명하기 위해 동아시아 사회주의 혁명운동, 극동민족대회 참가, 시베리아 한인들의 몽골 이주 등의 역사적 사실들을 검토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학계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사회주의 여성 운동가 남마리아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였다.

첫째, 1920년대 초 사회주의 혁명운동의 여파 속에서 항일 투쟁을 위한 동아시아 연대는 중한몽일 혁명위원회, 동양국, 극동비서부 등 동아시아 사회주의 혁명운동의 통합 조직의 설립을 통해 실현되었고, 이 과정에서 한몽 간의 정치적 연대가 모색되었다. 당시 이르쿠츠크파 사회주의 한인 세력과 1921년 몽골혁명 세력 간의 교섭에서 남마리아가 매개적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러시아 측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혼선으로 인해 한인 사회주의 운동 내부의 파벌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는 이후 한몽 연대가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1921년 극동민족대회 참석을 계기로 한몽 간의 정치적 연대가 보다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몽골에 체류하고 있었던 한인 2세 남마리아의 도움으로 여운형, 김규식, 나용균으로 구성된 한국대표단과 몽골대표단이 함께 극동민족대회에 참석하여 소비에트러시아의 지원 아래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도모하려고 했다. 그러나 몽골의 혁명지도자 린치노와 한인 인사 간의 정치적 교섭이 드러나지 않는 한계는 양측 정치 인사들의 사회주의 혁명 방법론과 대일 외교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1921년 혁명 승리와 근대화 도입이라는 몽골의 정치적 변화는 일제 식민지 지배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한인에게 새로운 기회의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당시 생활고로 힘든 재러시아 이주 한인들이 몽골 정부에 귀화·거주를 청원한 사실들이 몽골 측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여기에 남편 린치노의 정치적 비호 하에서 남마리아의 관여와 도움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한인들의 몽골 이주 문제에 대해 몽골 정부는 경제적 지원 등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이후 소

련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에 따라 기존의 한인 지원 정책을 소련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 참고문헌

- 몽골 국립중앙문서보관소 ΦX4-Ⅱ1-247, ΦHA1-Ⅱ1-208, ΦA-1-Ⅱ1-855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4-3-2.2-1-2 在シベリア Vol.16. 「庫倫在住鮮人二関スル件」 1926  
년 11월 25일
- 여운형, 1936, 「나의 회상記 第三篇」, 『중앙』 5월호
- 이인섭, 1995, 「이인섭의 편지」·「망명자의 수기」,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홍범도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_\_\_\_\_, 2010, 「모스크바에서 해삼까지」, 『이인섭과 독립운동사자료집 I-자서전-』, 독립  
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강만길·성대경, 1996,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비
- 곽상훈, 1966, 『事實의 全部를 記述한다-장건상 편』, 希望出版社
- 마뜨베이 짜모피예비치 김, 이준형 역(1990), 「남만춘」, 『(일제하 극동시베리아의)한인 사  
회주의자들』, 역사비평사
- 김준엽·김창순, 1986, 『韓國共產主義運動史 1 (資料篇)』,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 반병률, 2008, 「항일혁명가 이인섭(1888~1982)의 회상기에 기록된 스탈린 대탄압과 항일  
혁명역사 복원」, 『한국 근현대사연구』 47
- 서양중, 1989, 『外蒙古 問題에 關한 中蘇對立과 協商過程』,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오미영, 2022, 「1910년대 한국 독립운동과 몽골: 김규식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독립  
운동사연구』 78
- 임경석, 1999, 「극동민족대회와 조선대표단」, 『역사와현실』 32
- \_\_\_\_\_, 2003, 『한국 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 장세운, 2021, 「중국 동북(만주)·연해주 지역 독립운동 관련 주요 회고록 현황과 사료적  
가치」, 『한국 근현대사연구』 99.
- 조대호, 2025, 「이인섭과 극동 중국계 공산주의자들과의 교류 연구: 『이인섭과 독립운동  
사료집』 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92
- 生駒雅則, 1994, 「シベリア内戦とブリヤート・モンゴル」, 『スラヴ研究』 41
- 二木博史, 1995, 「リンチノとモンゴル革命」, 『東京外国語大学論集』 51
- 石川禎浩, 2007, 「コミンテルン大会の中国代表」, 『初期コミンテルンと東アジア』, 不二出版
- 青木雅浩, 2011, 『モンゴル近現代史研究 1921-1924年 -外モンゴルとソヴィエト, コミンテ  
ルン-』, 早稲田大学出版部
- Л.Бат-Очир, 1996, 『ЧОЙБАЛСАН』, УБ
- Ж.Баттөр, 2000, 『XX зууны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 I』, УБ

- Н.Эрдэнэтуяа, 2000, 『Монголын гурван хувьсгал』, ҮБ
- Х.Мэндсайхан, 2012, 『Монгол улс дахь гадаадын иргэдийн харьяаллын асуудад (1921-1940)』, ҮБ
- Д.Үламбаяр, 2013, 『СОЛОНГОСЧҮҮДААС БОГД ХААНД ӨРГӨСӨН АЙЛТГАЛ БИЧИГ, ТҮҮНИЙ ХҮВЬ ЗАЯА』, 『Монгол Улс, Алс Дорно дахин: Олон улсын харилцаа, геополитик, дипломат ажиллагаа』 I, ҮБ
- Д.ЦЭНД, 2022, 『МОНГОЛЫН ЭМЭГТЭЙЧҮҮДИЙН ХЭВЛЭЛИЙН ХӨГЖЛИЙН СҮДАЛГАА』, ҮБ

투고일: 2026년 03월 20일 심사완료일: 2026년 04월 13일 게재확정일: 2026년 04월 27일

■ Abstract ■

## Korean–Mongolian Solidarity in the Early 1920s : Its Limits and the Role of Nam Maria

Oh, Miyoung(Institute for Mongolian Studies of Dankook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attempts and limits of Korean–Mongolian solidarity in the early 1920s socialist revolutionary context.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Nam Maria, it analyzes how solidarity between Korea and Mongolia unfolded and why it ultimately failed to develop into sustained cooperation. In the 1910s, Mongolian nationalists viewed Mongolia as a potential new base for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but the sudden death of Lee Tae-jun greatly weakened this base. In the 1920s, however, the establishment of integrated organizations such as the Sino–Korean–Mongolian Revolutionary Committee, the Eastern Bureau, and the Far Eastern Secretariat laid the political foundation for Korean–Mongolian solidarity. Within this international anti-Japanese united front, close negotiations took place between of and Mongolian revolutionary forces. During this process, Nam Maria married the Mongolian revolutionary leader Rinchino and moved to Mongolia in 1921.

The Congress of the Toilers of the Far East, held in 1921, marked a decisive turning point at which Korean–Mongolian solidarity became more concrete. With the assistance of Nam Maria, who was staying in Mongolia, the Korean delegation—composed of figures such as Lyuh Woon-hyung and Kim Kyu-sik—was able to attend the congress together with the Mongolian delegation. Both sides also expanded their political solidarity by discussing concrete plans for national independence and liberation under Soviet support. However, limitations appeared in that the political negotiations between the Mongolian revolutionary Rinchino and Korean figures did not fully come to light. This appears to have stemmed from the differences in revolutionary strategies and approaches to diplomacy toward Japan.

Meanwhile, the political changes following the success of the 1921 revolution led Koreans under Japanese pressure to view Mongolia as a potential destination

for migration. Cases been confirmed in which Koreans requested naturalization and residence from the Mongolian government, and Nam Maria exerted a certain degree of influence in this process under Rinchino's political protection. Although the Mongolian government was initially favorable toward Korean migration, its policies later revealed limitations as they became subordinated to Soviet directives amid changes in Soviet-Japanese relations.

In this way, Korean-Mongolian solidarity showed certain possibilities within the socialist international order. However, due to confusion in Soviet East Asian policy and Nam Maria's move to the Soviet Union following Rinchino in 1925, it lost its central focus and ultimately failed to develop into substantive cooperation.

Key words: Korean-Mongolian Solidarity, Nam Maria, Rinchino, Mongolian Revolution, Congress of the Toilers of the Far East